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4년 5월 24일(금)

---(음력 4월 17일)---

Пятница

24 мая 2024 г.

№ 20 (12087)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5월 24, 25일에는 사할린주의 학교들에서 '마지막 종소리' 행사가 펼쳐진다.

(이예식 기자 사진첩에서)

친애하는 졸업생, 학부모, 선생님 여러분!

마지막 학교 종소리라는 멋진 행사일을 맞아 축하를 전합니다! 학생 여러분, 여러분은 먼 길을 걸어왔고 탄탄한 지식, 꿈, 기회를 바탕으로 하여 학교를 떠납니다. 시험, 직업 선택, 첫 번째 독립적인 결정 등 가장 중요한 단계가 시작됩니다.

이 길에서 성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기준을 높게 세워야 합니다. 기말고사에서 행운을 빌고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선생님들께 특별한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의 성공은 여러분의 공로입니다. 여러분은 아이들에게 지식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투자하여 가치 있는 시민으로 키우고 계십니다.

친애하는 졸업생 여러분! 우리 지역은 여러분 각자를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는 섬지역에서 전문 교육과 성장을 위한 여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할린테크 국제 캠퍼스가 주 중앙도시에서 건설되고 있고, 고급 공학 학교 설립을 시작했으며, 경제의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첨단 기술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섬에서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사할린 주지사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주, 올해 340개의 아파트 보수

올해 사할린과 쿠릴열도에서는 지난해에 비해 거의 2배 달하는 340개의 아파트 건물이 보수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주주택공공경리부에 지시를 내렸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섬에서는 외관 개조를 포함한 아파트 건물의 대대적인 수리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관련 부처에 개건 작업의 양을 두 배로 늘리라고 지시했습니다. 따라서 건설 시즌 계획에는 섬 지역 전역에서 340 채의 아파트 건물을 수리해야 합니다. 동시에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건물과 개건에 관한 모든 변경 사항은 주민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강조했다.

보수작업은 사할린 주의 거의 모든 구역들에서 시작되었다. 포로나이스크와 마카로브 시구들과 쿠릴열도의 지방 자치체에서도 곧 보수 작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현재 이 지역에서는 준비 작업이 완료되고 있으며 필요한 건재의 배송이 마무리되고 있다.

이 계획에는 엔지니어링망 교체, 정면, 지붕, 기초, 지하실 및 승강기 수리가 포함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다양한 수준의 예산을 통해 약 50억 루블리가 할당될 예정이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주택 보수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는 총 120채 이상의 주택이 보수될 예정이다. 홈스크, 오하, 코르사코브 지역도 작업 규모 면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곳에서는 각각 34개, 26개, 24개의 주거용 건물이 새로운 모습을 갖추게 될 것이다.

단신

유즈노사할린스크시, 꽃 백만 송이 심을 예정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의 지시에 따라 2년 연속 유즈노사할린스크에 최소 백만 송이의 꽃을 심을 예정이다. 유즈노사할린스크는 장미, 금어초, 제비꽃, 튜립, 아도니스, 센토레아, 카네이션 및 기타 다채로운 꽃으로 장식될 것이다. 지난 20일(월)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와 세르게이 나드사진 시장은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꽃 심기 작업을 점검했다.

현재까지 유즈노사할린스크에는 7만 송이의 꽃을 심었고 작년 가을에 심은 8만 개의 튜립이 꽃을 피웠다. 5월 말까지 6만 5천 그루의 꽃 묘목을 더 심고 6월 15일 이후에는 다양한 일년생 식물 묘목을 심을 예정이다.

점점 차 시내에 나간 주지사와 시장은 이날 직접 꽃 심기에 참가했다.

토마리, 60가구 새 주택으로 입주 예정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토마리 구역의 올가 만자라 시장과 만나 지방자치체 주요 업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만자라 시장은 주요 문제 중 하나는 새로운 주택 건설과 노후주택으로부터 이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5년 동안 토마리 구역에는 준공된 새 아파트 18채에 516 가구가 입주했다. 2024년 계획은 21 가구에 새 주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날 만남에서는 조정, 도로 건설, 지방 자치체의 문화 및 교육 발전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주지사와 시장, 유즈노사할린스크 주택단지 공사 상황 점검

지난 21일(화)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와 세르게이 나드사진 시장은 노워알렉산드롭스키에 건설 중인 주거 단지 '웨르바'와 노와야 체레브나 마을의 '그린 타운'단지를 방문해 주택 및 사회 시설 공사 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주지사와 시장은 '라두가(무지개)' 민속 문화 센터에서 주민들과 만남을 가졌다. 주민들은 마을 재정비, 사회 시설 및 도로 공사, 문화 및 교육 분야 등에 관련해 질문을 했다.

주지사, 이투루프 출장

지난 5월 23일(목)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실무차 이투루프를 방문했다. 주지사는 쿠릴스크 구역 안나 오스키나와 구역의회 타치야나 벨로우소와 의장을 만나 이들과 이동엑스레이실, 유치원 공사 현장을 비롯 사회시설, 소공원 공사 현장, 산업장 등을 찾았다. 이날 저녁에는 쿠릴스크 구역 주민들과 만남을 갖고 지역 문제점에 대해 논의했다.

새고려신문

2024년 하반기 신문 구독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4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이 계속됨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은 새고려신문 창간 75주년인 만큼 우리에게 각 독자가 소중합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6개월 구독료는 646,98루블리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사할린 폭기 콘크리트 공장 사장인 첸(정) 세르게이 테수예위츠(1985년생)는 아주 바쁜 분이다. 인터뷰 할 때도 계속 급한 연락이 들어오고 있었다.

그는 작년 9월부터 공장을 맡아 운영하고 있다.

"사실 주인, 설립자가 따로 있고 폭기 콘크리트 공장 외에 아스팔트 콘크리트 공장, 건설회사 등 한 홀딩으로 보면 됩니다"라고 정 사장이 설명했다.

공장이 공식적으로 2016년부터 가동돼 소비자도 꽤 있는데 전 지도자의 운영에 문제가 있어 설립 측에서 공장장을 바꾸기로 했다.

"저에게 세워진 우선적인 과제는 공장에 일하는 사람들끼리 신뢰를 되찾는 것입니다."라고 정 세르게이 사장이 말했다.

현재 공장에 약 80명이 일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일해온 전문가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고 일부는 바꿀 수 밖에 없었다.

정 사장이 믿을 수 없는 사람, 신뢰가 없는 사람하고는 일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마흔이 아직 안 되는 사람에게서 이 말을 듣고 그가 책임감이 높고 인간적인 사람이란 걸 느꼈다.

그는 지도부에서 세워진 과제를 조금씩 해결해나가고 있다. 정 사장은 올해 생산과정을 가스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래 산업 가스화는 사할린에는 2026년까지 해결할 것이라고 하는데 공장의 효과적인 운

정 세르게이 사장: 신뢰가 우선이다



영에는 빠를수록 전환하는게 좋다는 판단에 정 세르게이 사장이 주지사의 도움까지 요청했고 긍정적인 답을 받았다.

정 사장은 또한 생산과정을 현대화하고 생산량을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장을 맡기 전에 그는 전혀 다른 분야에서 일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출신인 그는 사할린국립대학 석유가스와에서 공부를 마친 후 한 석유가스회사에 취직했다. 1년후 영어가 부족하다는 생각에 동료를 따라 뉴질랜드로 가서 영어를 배웠고, 그곳 대학에 지원했다. 그러나 거의 같은 조건으로 영국대학의 석사과정을 받을 기회가 있어서 영국을 택해 1년 반 정도 영국에서 물류에 관한 공부를 했다.

영국에서 교육을 마친 정 세르게

이는 사할린으로 돌아와 석유가스분야 회사에서 한 3-4년 일했는데 그 당시 자재, 견제 관련 업무도 했다.

이후 현 회사 설립자에게서 초대를 받아 견제 구입과 물류에 관한 업무를 맡게 되었다. 설립자는 정 세르게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란 정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와 함께 일하게 되었다. 이 회사에서 견제 구입 책임자로 한 6년을 일했더니 더 이상 이 분야에서 성장할 전망이 없다는 판단으로 세르게이는 회사를 그만둘까 하는 생각이었는데 다른 분야에 도전할 수 있는 제안을 받은 것이다.

그는 엄격하지만 공장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따뜻해졌다고 생각한다. 겨울에 예방 작업을 할 당시 공장에 비상사태가 생겼는데 그때 노동자들과 같이 고장 난 것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면서 사람들의 신뢰를 느꼈다고 한다.

정 세르게이 사장은 대화 중에 '신뢰'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다. 이 개념은 아마도 가족에서, 그리고 쌓인 경험에서 나온 것 같다.

그는 항공교통관제사(현 연금자)로 일했던 아버지를 아주 많이 존경하고 좋아한다.

'부모는 당신에게 어떤 분'이란 필자의 질문에 그는 '자랑'이라고 아주 간단하게 말하였다.

아버지와 형에 대한 여러 이야기

를 전하는 세르게이의 모습에는 진심어린 사람이 느껴졌고 필자가 당장 이 분들을 취재하고 싶은 마음까지 생겼다. 한 가지 사실은 올해 일흔이 된 아버지가 한 8년전에 인도를 가서 오토바이를 타고 산에 올라간 적이 있다는 것이다. 세르게이는 부모가 항상 그를 응원하는 것에 대해 큰 고마움을 표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가 효자란 걸 느껴졌다.

얼마전에 정 세르게이 사장은 '빅토리아'장애아보호단체(지도자 이 나탈리아)와 협정서를 체결했다. 장애아와 이들의 부모를 돕겠다는 뜻이다. 폭기 콘크리트 구입에 협조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약속한 그는 기업인들이 이와 같은 활동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공장은 학교학생들의 직업선택 프로그램에도 참가한다.

요즘 들어 "가장 어려운 일은 매일 인간으로 남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인간으로 남아야 합니다."란 말이 귀에 쏏힌다고 한다.

그는 공장장이 되고 나서 좀 변했다고 한다. 더 엄격해지고, 사람에 대한 판단이 빨라지고, 결정을 더 빨리 내리고, 재정문제를 더 잘 알게 되었다고 한다.

7년전에 결혼한 그는 딸(6세)과 아들(2살)과 시간을 보내기를 좋아한다. 자녀들은 아빠와 함께 자는 것을 두고 때로 다투기도 할 정도로 가

깝고, 아버지인 그는 아이들에게 동화책도 읽어주고 잘 놀아줄 정도로 다정하다. 한편 6살 연하인 아내는 아주 옛날부터 알던 친구의 동생이자 사업으로 만난 사람이다. 전에 대도시 생활을 해볼까 생각했던 그가 현재 사할린에 남아있는 것은 아내 때문이다.

그는 유머감각이 좋고 대화가 통화하고, 어느정도 사고방식이 비슷한 친구 5-6명이 있다고 하는데 모두가 러시아인들이다. 물론 지인 동포의 수는 아주 많다.

알고 보니 그는 당구를 즐기는데 거의 프로피 수준이다. 요즘은 가족 때문에 그리 많이 당구클럽에 가지 않지만, 한때는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펼쳐진 여러 경기에서 수상할 정도로 열성이었다. 스노우보드도 하고 몰디브 신혼여행 때는 다이빙에 매료됐었다고 한다.

영국에서 공부할 때 프랑스, 스위스, 아일랜드 등 유럽 여행을 했었고 사업차 중국에도 가보고, 관광으로는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을 가보았다. 아내의 부모가 한 국으로 귀국했으니 한국은 필수 코스로 다녀간다.

자신의 노력만으로 성장하고 가족을 아끼고 사랑하고, 따뜻한 미소를 지은 정 세르게이 사장을 힘껏 응원하고 싶다.

(배순신 기자)

이모저모

'사할린 달리기'하프 마라톤, 1000여명 참가

지난 주말에 전 러시아 하프 마라톤 "ЗаБег.РФ"의 일환으로 "사할린 달리기" 하프 마라톤이 아니와에서 열렸다. 사할린 주스포츠부 보도국에 따르면 지역의 가장 큰 육상 대회 중 하나인 이 대회에는 1000명 이상이 참가했다.

러시아에서 다섯 번째 개최한 대회로, 올해 섬 조직위원회는 "ЗаБег.РФ" 개최지를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아니와로 옮기기로 결정했다.

5~7세의 최연소 선수들이 가장 먼저 출발했으며, 이들을 위해 500미터 코스가 준비되었다. 11~12세 참가자와 건강제한이 있는 선수들은 1km 코스에서 경쟁했다. 올해 가장 인기 있었던 5km코스에서는 13~17세와 18세 이상의 선수들이 두 연령층으로 나뉘어 경쟁을 펼쳤다. 성인 선수들은 10km와 21.1km 하프 마라톤 코스에 출전했다.

수상자 명단은 사할린 주 스포츠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Полумарафон «Сахалинский забег» собрал более 1000 участников

В минувшие выходные в Аниве в рамках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полумарафона «ЗаБег.РФ» состоялся полумарафон «Сахалинский забег». На старт одного из самых крупных легкоатлетических состязаний вышли более 1000 человек,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Эти соревнования проходили в России уже пятый раз. В этом году островным оргкомитетом было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перенести место проведения „ЗаБега.РФ“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 Аниву.

Первыми на старт вышли самые юные спортсмены в возрасте от 5 до 7 лет — для них подготовили дистанцию в 500 метров. Участники в возрасте 11-12 лет и спортсмены с ОВЗ состязались в дистанции 1 км. Одной из самых популярных дистанций в этом году стал отрезок в 5 километров — в ней легкоатлеты состязались в двух возрастных группах — 13-17 лет и 18 лет и старше. Взрослые спортсмены состязались также в дистанции 10 км и полумарафонской дистанции 21,1 км.

Со списком победителей можно ознакомиться на сайте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사할린 견학 가이드, 전국 관광 프로젝트에서 우승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안드레이 카프칸이 투어 가이드가 '가이드 리그'프로그램의 '관광 자원봉사 활동'부문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했다.

"가이드 리그"는 전국의 수천 명의 견학 가이드와 여행 가이드가 전문 기술을 겨루는 대규모 프로그램이다. 이들의 전문성을 학생, 전문가, 여행자, 사회 활동 리더 및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단계별 평가했다. 이 프로그램은 지식과 기술을 테스트하고 새로운 경로를 개발하는 것 외에도 러시아 관광 산업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문 커뮤니티의 핵심을 형성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러시아 59개 지역 대표 210명이 '가이드 리그' 결승전에 참가했으며, 대회는 7개의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가이드 리그' 프로그램은 2023년 12월에 시작되었으며 자격단계, 지역 예선, 결승전 - 세 단계로 구성되었다. 전국에서 총 6,800명 이상의 청소년 및 성인 가이드가 대회 참가를 신청했다.

최종 사례 솔루션의 일환으로 지역여행의 새롭고 독특한 코스를 제시한 안드레이 카프칸을 포함해 투어 가이드 리그 프로그램의 가장 성공적인 결선 진출자 7명이 그랑프리를 수상했다. 최종 사례 챔피언십에서 그는 유즈노사할린스크시 근처에 위치한 천연기념물 "랴구쉬카(개구리)" 언덕을 여행하는 코스를 발표했다.

Экскурсовод с Сахалина победил во всероссийском туристическом проекте

Андрей Кафкан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тал обладателем Гран-При в номинации «Волонтерско-экскурсионная деятельность» программы «Лига экскурсоводов».

«Лига экскурсоводов» — масштабная программа, в которой тысячи гидов и экскурсоводов со всей страны соревновались в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м мастерстве. Их профессионализм на разных этапах оценивали студенты, эксперты, путешественники, лидеры общественного мнения, а также выдающиеся деятели из разных сфер. Программа, помимо проверки своих знаний и навыков, разработки новых маршрутов, была рассчитана на фор-

мирование ядра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пособного повлиять на развитие туриндустрии в России.

В финале «Лиги Экскурсоводов» состязались 210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из 59 субъектов России, а сам конкурс проходил в 7 номинациях. Программа «Лига Экскурсоводов» стартовала в декабре 2023 года и состояла из трёх этапов: квалификационного, регионального и финального. Всего для участия в конкурсе подали заявки более 6,8 тысяч юных и взрослых экскурсоводов со всей страны.

Обладателями Гран-при стали семь самых успешных финалистов программы «Лига Экскурсоводов», в том числе и Андрей Кафкан, который в рамках решения финального кейса представил новый уникальный маршрут по родному краю. На финальном кейс-чемпионате он представил маршрут, в котором представлена экскурсию на останец «Лягушка» -памятник природы, расположенный недалеко от города Южно-Сахалинск.

사할린, '추념의 정원' 행사 일환으로 약 4,000그루의 잎갈나무 식수

사할린 주에서 전 러시아 운동 "추념의 정원"에 참여하며 그 일환으로 3,800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이는 산림 및 수렵청 홍보실이 전했다.

지난 5월 18일(토) 산림청 직원, 자원봉사자, 석유가스 회사 대표, 트로이츠코예 고아원 학생, 청소년군 단체 회원, 특수작전 참전자 가족 및 기타 지역 주민들이 이 섬의 수도인 산림 관리장에 낙엽송 묘목을 심었다. 전체적으로 약 100명 섬 주민들이 이 활동에 참여했다.

"올해 식목은 이미 쿠릴스크, 유즈노쿠릴스크, 네웰스크, 토크스스코예, 코르사코브, 홈스크, 마카로브 구역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몇 년 후 묘목을 심은 장소에 멋진 정원이 생겨 우리와 아이들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라고 산림청 부청장 옥사나 페체르키나가 말했다.

'추념의 정원' 캠페인은 5년 동안 섬에서 진행되어 왔다. 산림장과 주내 자치체의 토지에 6,600여 그루의 침엽수 묘목을 심을 예정이다. 활동 종료는 6월로 예정되어 있다.

이 연례 활동의 주요 목표는 위대한 조국 전쟁과 특수군사 작전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 러시아 전역에 2,70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데 있다.

(8면에 계속)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언론인들의 오솔길 열어

지난 23일(목)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클레웨르-홀'쇼핑센터 근처 소공원에서 언론인들의 오솔길이 열렸다. 이날 개장식에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세르게이 나드사진 시장이 참가해 주내 언론인들과 함께 묘목을 심었다.

"나는 언론인들을 항상 존경하고 자주 직접 만나다보니 많은 기자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라디미르 세멘치크 사할린주 기자협회 회장의 우리 도시에 언론인들의 오솔길을 만들자는 제안에 긍정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개장을 위해 우리는 소공원에 라일라 꽃 나무를 심었습니다"라고 나드사진 시장이 언급했다.

러시아 기자 연맹 사할린 협회 블라디미르 세멘치크 회장은 "오늘 행사장에서 이 곳에 주내 모든 언론사, 미디어 매체들이 자기 나무를 심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들어왔고 시에서 이걸 긍정적으로 받아드렸다"고 기뻐했다.

새고려신문사를 대표해 이날 행사에 이예식 기자가 참가했다.

(본사 기자)

(사진: 이예식 기자, 사할린주기자협회 제공)



재외동포청, 고려인 청년·청소년 대상 「한국이해과정」 개설

7월 22일부터 한달간 35명 초청해 운영... 5월 29일까지 참가자 모집
다문화가정 동포, 원폭피해 동포 후손 등 겨울에도 진행...
'재외동포 보듬기' 일환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러시아·독립국가연합(CIS) 지역에 거주하는 고려인 청년·청소년이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한국이해과정」을 개설한다.

'재외동포 보듬기'와 러시아 이주 고려인 160주년을 기념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7월 22일부터 한 달 동안 고려인 청년과 청소년 35명을 대상으로 이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러시아·CIS 지역에서 중학교 이상을 졸업한 만 15세 이상 30세 이하의 고려인 동포는 5월 29일까지 참가지원서 등 서류를 재외동포청 홈페이지(www.oka.go.kr)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후 메일(asru@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합격자는 교육기간 중 필요한 교육비, 숙박비, 여행자보험료에 대해 전액 지원을 받으며, 동 교육 과정 참가 목적으로 구입하는 항공료는 130만원을 한도로 70%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후손, 학업 분야 및 활동 관련 수상 경력이 많거나, 기본적 한국어 구사능력을 보유한 청년과 청소년은 선발 시 우대받을 수 있다.

재외동포청은 겨울('24.12.16.~'25.1.17.)에도 다문화가정 동포, 원폭피해 동포 후손, 파독광부 후손 등을 대상으로 「한국이해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과정의 참가자들은 수준별 한국어 강의와 다양한 현장체험을 통해 한국어와 한국문화·역사, 한국의 발전상을 생생하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다.

이기철 청장은 "'한국이해과정'을 통해 재외동포 보듬기의 범위를 교육 지원 분야로도 확대할 계획'이라며 "한국에서 교육받고 성장하기를 희망하는 차세대 재외동포들이 꿈을 실현하는 데 이 과정이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청 제공)

사할린 한인 2세의 '서러운 아리랑'

이병일(전 사할린한국교육원장)

(전호의 계속)

사할린 한인 2세의 간절한 소망

한국교육원 한국문화 수업을 함께하면서 이분들의 간절한 소망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알게 되었다. 이분들의 깊은 상실감은, 1세대 부모가 사망한 2세대 자녀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영주귀국이나 지원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1945년 8월 15일 이후 러시아 사할린 땅에서 태어났다는 숙지주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분들은 부모님의 뜻에 따라 어려서부터 한국어를 말하고 쓰고 배우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부모님이 술김에 흥얼거리는 아리랑 가락을 들으며 자랐고, 한국의 전통 풍습과 명절을 쇠었으며, 조선에서 가져오거나 사할린에서 만들어 쓴 조선의 생활 물품을 늘 보고 쓰며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 조국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으로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냉전의 시기를 살아왔다.

해방 후 냉전 시기에 사할린 한인들은 억류되어 감시당하며 사회주의 소련 땅 사할린의 노동력을 보충하는 신분이었다. 이동과 취업, 인간의 권리 측면에서 차별과 멸시가 심했다. 그러다가 1988년 서울올림픽과 소련의 개혁·개방 정책에 따라 대한민국의 발전상이 보도되면서 급격히 사할린 한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다. 그렇지만 어린 시절 당했던 차별과 수모에 대해서는 늘 대화의 끝에 "정말 술하게 멸시받았어." 하시며 푸념하듯 말씀하시곤 했다.

오죽했으면 한인 2세대인 사할린 태권도협회 안수학 회장은, 어린 시절 차별과 수모에 반대하여 자주 싸움을 했고, 김치 냄새난다고 놀리는 러시아 아이들 혼내주고 스스로 방어하기 위해 가라테를 배웠다. 한려수교 후 태권도를 다시 익혀 지금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부모들은 국적을 바꾸지 않고 조국으로 돌아갈 날만 기대하고 있었고 2세대 자녀들은 귀환을 믿으며 굳건히 당당히 살아왔다.

1990년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후 고국 방문이 이루어질 때 한국에 다녀오신 1세대 부모들이 많았다. 그러나 영주귀국 희망 신청이 이루어지던 결정적 시기를 맞이하기 전에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이 참으로 많다. 그 시기에 생존해 계신 1세대 분들은 영주귀국을 희망하고 신청하여 그리던 고국에 정착하셨지만, 사망한 1세대 분들은 영영 통한의 그리움 안고 사할린섬 또는 이 중징용된 일본 땅에 묻히셨다.

나는 이분들의 지위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 만한 위치에 있지는 않다. 하지만 영주귀국 확정 전에 부모를 잃은 2세대 분들의 원한을 내 두 귀로 듣고 두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간직한 공감을 전하고 싶다.

사할린 동포 지원 특별법에 "사망 등 다양한 사유로 영주귀국 신청을 하지 못한 1세대 동포들의 자녀들에게도 희망에 따라 영주귀국의 기회와



광복절 추모식, 코르사코프 방향의 탑

모국인 대한민국의 국적 취득이나 경제적 지원의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러한 범위의 2세분들 중에는 현 러시아 정부의 연금을 수령하는 분도 있고, 홀로 사업을 일으킨 분도 있으며 이미 사할린 사회에 인정을 받은 문화 예술 공로자도 많고 자녀들과의 이별을 두려워하는 분들도 많다. 따라서 그런 범위의 2세대분들이 모두 영주귀국을 희망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조국이 풀어주지 못한 부모의 원한을 보며 겪으며 성장하고 기억하는 자녀들의 소망을, 조국 대한민국이 인도적인 차원에서 고려하면 좋겠다는 것이다.

사할린 한인 2세의 고통과 설움은 곳곳에서 나타난다. 사할린한국교육원과 유치원에서 25년간 한국어를 가르치시다가 2021년 영주귀국 신청으로 한국에 오신 2세 전영희 선생님은, 어머니가 2004년 병환 중에 영주귀국을 하셨지만 국적이 나오기 전에 한국의 병원에서 사망하셔서 한국 국적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니 전영희 선생님은 부양할 부모가 없어 영주귀국 대상이 될 수 없었다. 그래서 영주귀국 하시는 1세분과 재혼을 하여 배우자 자격으로 2021년 11월에 영주귀국을 하셨다. 그러나 배우자께서 역시 국적 취득 전에 별세하셔서, 한국 국적이 나오지 않아 애태우고 계신다.

이러한 처사에 우리는 무슨 일인가 화가 났다. 영주귀국 하신 분이 돌아가시면 사후에라도 국적을 드려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래야 자녀에게도 법적으로 고국에서 살아볼 기회가 생긴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한국에 오셨는데, 남편이 국적을 받기 전에 별세하여 국적이 나오지 않는다면 부인은 다시 사할린으로 돌아가라는 것인가. 법 적용이 과도하게 냉혹하고 거칠다. 유독 사할린 한인, 사할린 동포들에게 더 냉혹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또 하나의 문제는, 2021년 법 개정에 따라, 1세 부모 부양을 위해 영주귀국이 허용된 2세대 분 중에는 한국어에 서툰 분들이 많고 일상 생활, 행정적 처리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다.

(다음 호에 계속)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После Пекина курс на Пхеньян

Москва, 20 мая – ИА РУСКОР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был проинформирован о туристическом обмене между Москвой и Пхеньяном, а также идет подготовка к его визиту в Северную Корею, сообщили в Кремле. Российское информационное агентство ТАСС в субботу процитировало слова пресс-секретаря Кремля Дмитрия Пескова: «Подготовка к визиту идет своим ходом». Путин не посещал Северную Корею с июля 2000 года.

Между тем, Александр Козлов, министр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России, возглавляющий меж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ую комиссию по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с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во время встречи с Путиным в субботу подчеркнул растущую популярность туристических обменов между двумя странами. Козлов заявил: «У нас с нашими корейскими товарищами большие планы. Некоторые из них мы недавно реализовали. Произошел хороший обмен туристическими группами». Козлов также сообщил президенту, что Московский зоопарк и артисты балета недавно посетили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и страны обсуждают селекцию растений. Когда Путин спросил его о дальнейших планах, Козлов ответил: «У нас есть планы продолжить эту работу». Однако Песков сообщил, что встреча Путина с Козловым не связана с подготовкой поездки Путина в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Во время своего визита в Россию в сентябре лидер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Ким Чен Ын пригласил Путина приехать в Пхеньян. Затем в январе министр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Чхве Сон Хи встретила с Путиным в Москве и позже в ее офисе сообщили, что Путин выразил готовность посетить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В феврале посол России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Александр Мацегора заявил в интервью СМИ, что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готовка к подписанию совместных документов двумя странами во время визита Путина в Северную Корею.

Фестиваль культуры Корея-Узбекистан 2024 в Ташкенте

17 мая во Дворце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и искусства состоялся грандиозный Фестиваль культуры Кореи и Узбекистана-2024, посвященный 87-летию переселения корейцев в Центральную Азию и 32-летию дружественны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и Республикой Узбекистан, в котором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более 500 зрителей.

В рамках этого мероприятия состоялся показ корейской и узбекской традиционной одежды, конкурс сочинений, конкурс кулинарного искусства, олимпиада по математике, а также конкурс K-POP.

Состоялось также вручение почетных грамот председателю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ских культурных центров Узбекистана Пак Виттору и председателю Ассоциации южнокорейских граждан, проживающих в Узбекистане Кан Чан Соку.

А также состоялась церемония присвоения почетной степени профессора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Кимё председателю Института объединения и культуры Ро Джон Оку.

В конкурсе K-POP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30 команд, из них 9 групп прошли в финал. Победителем конкурса K-POP стала K-POP группа «Pikachu».

Для всех гостей и участников были приготовлены сладости, узбекский плов и корейский пибимпаб.

(Сайт Коре-сарам. Записки о корейцах)

В Екатеринбурге пройдет Форум корейской генеалогии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мероприятия выступают Светлана Хасанова (Москва) и Виктория Хегай (Челябинск), которые расскажут об опыте проведения генеалогиче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и изучении собственной родословной.

В работе форума также принимают участие заведующая отделом Музея истории Екатеринбурга, исследователь в области истории жертв политических репрессий Т.М. Знак (Екатеринбург), специалист по истории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 Д.В. Шин (Москва), руководитель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ого проекта «РодоДрево», эксперт по поиску информации в документах органов ЗАГС Н.Н. Латотина (Екатеринбург), преподаватель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Челяб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Джан Вон Чан (Сеул,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О корейцах Среднего Урала и проекте по сохранению памяти корейцев, репрессированных в Свердловской области, расскажут представители национально-культурной автономии корейцев Екатеринбурга профессор Валерий Дмитриевич Тхай и доцент Розалия Николаевна Ан.

Специальный гость форума — Наталья Аужанова (Тен) из Астаны расскажет о собственном уникальном генеалогическом исследовании, проведенном на основании семейной родословной книги чокпо.

Форум состоится в Атриум Палас Отеле г. Екатеринбурга. Формат участия — очный. Об этом сообщает Телеграмм-канал KORE-SARAM/KORYO SARAM/고려인.

Фотовыставка «Корейские колхозы на Советском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Казахстане и Средней Азии»

В результате огромной подготовительной работы в г. Кванджу с 28 мая по 16 июня впервые состоится уникальная фотовыставка КОРЕЙСКИЕ КОЛХОЗЫ НА СОВЕТСКОМ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КАЗАХСТАНЕ И СРЕДНЕЙ АЗИИ.

Она посвящена 160-летию добровольного переселения корейцев в Росси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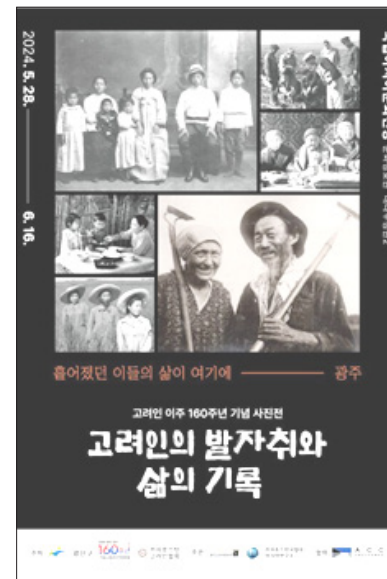
Инициаторами фотовыставки выступили д.и.н., проф. Ким Герман и директор музея корейцев в Кванджу, поэт, переводчик Ким Бен Хак.

Основная часть фотографий из

личных архивов инициаторов, которые формировались в течение десятилетий.

Выставку поддержали учреждения и организации Кореи, г. Кванджу, с казахстанской стороны —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и Институт Азиат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КазНУ им. аль-Фараби.

Инициаторами фотовыставки подготовлен буклет с приветствиями и поздравлениями, а также историческим очерком о корейских колхозах в Советском Союзе на корейском и русском языках.



Творческий вечер с поэтессой Мартой Ким

Общероссийское объединение корейцев совместно с Домом народов России, при участии Клуба любителей поэзии из числа русскоязычных корейцев,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конгресса этножурналистов «Культура мира» (ВКЭЖ), провели 21 мая 2024 года творческий вечер с поэтессой Мартой Ким.

Ким Марта Борисовна, член Союза писателей Узбекистана, автор 20 поэтических сборников, победительница VI литературного конкурса. Стихи Марты Ким выходили в антологиях, сборниках в Казахстане, Узбекистане, Латвии, Корее. В Москве, в 2019 году был издан сборник стихов «Древо жизни», в 2020 — «Сумерки», а в 2021 «Афоризмы».

Цель мероприятия — изучение и пропаганда творчества русскоязычных писателей и поэтов, в том числе из среды национальных авторов России и СНГ.

На встречу были приглашены любители русской словесности, поэзи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творческой интеллигенции, руководители национальных общин, средств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и Москвы и Московской области.

Марта Ким уже более 5 лет живет в Москве, оказавшись в новой реальности, здесь ведь всё иное: огромный мегаполис с вечно спешащими людьми, сама атмосфера, среда, близкие, природа, воздух и то совсем другой... Что же с того, что тебя хорошо знали в Узбекистане, Ташкенте. Однако вскоре обнаружилось — творчество Марты Ким, известно и за пределами Узбекистана. Поэтесса притягивает своим глубоким, сложным и пронзительным внутренним миром. Стихи отражают смелую, неординарную, но ранимую поэтическую натуру, сильную, и вместе с тем, робкую женщину, прекрасную мать.

Московский Мир Марты Ким — это мир сегодняшний, непостоянный, построенный из прошлого и настоящего, мир раздумий, реальности и природы, мир души современника. Теперь не только узбекский, но и московский, российский читатель считает творчество Марты Ким радостным открытием!

В стихах Марты Ким ее мудрая, сильная и в то же время ранимая лирическая героиня размышляет о любви, мироздании, жизни и ее вечных ценностях. Быть поэтом во все века было пыткой, нести этот крест тяжело. Поиском, пыткой, страданием, нахождением верного, единственного слова в стихах, чтобы волновать каждого из нас, будто они о нас, о нашей судьбе и жизни. Вот это и есть настоящая тайна поэзии Марты Ким.

Родилась Марта Ким в марте, окончила филологический факультет Ташкентского госуниверситета. Весна ассоциируется с мартом, именно в марте у нее открывается весеннее, теперь «московское дыхание», появляются «московские стихи». Поначалу весеннее, где героиня Марты то радостная и веселая, как первая капля, то вдруг отстраняющаяся от всего мира. Ведь и ранее были у нее поэтические строки — «крик души, как взмах руки, как стук дождя, как грусть в глазах». Но и в мае сие продолжается!

В творениях Марты Ким есть ёмкость, красота слова, точность мысли, философичность, неподдельность отражения глубоко личного, часто истинно меланхолические мотивы, но они психологически точно обнажают внутренний мир взволнованной личности,



дисгармоничный, иногда даже трагический. Поэтому и сейчас темы одиночества, разочарований, душевного дисбаланса ярко выступают в творчестве Марты Ким, обнаруживая её «обнаженную душу» — «лицо без маски, сердце без щита».

В стихах Марты Ким ее мудрая, сильная и в то же время ранимая лирическая героиня размышляет о любви, мироздании, жизни и ее вечных ценностях. Глубокие и тонкие стихи трогают душу, поднимают животрепещущие вопросы бытия и смысла жизни... В её стихах сочетаются красота слова, точность мыслей, философичность. Кажется, что преобладают грустные мотивы, но они психологически точно передают внутренний мир.

Недавно вышел новый сборник поэтессы Марты Ким «Белые ночи», четвёртый, с момента её переезда в Россию. Она нашла и в России своего читателя.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публикуется в сборниках «О верности любви», «Петра творенье», «Донбасс в наших сердцах», в них представлена её философская, лирическая, любовная лирика. В этом 2024 году вышел Сборник афоризмов «Зеркало».

Марта Ким — автор многочисленных сборников поэзии и афоризмов, член Союза писателей России, пятикратный лауреат конкурса «Преодоление» в разных номинациях. Награждена медалью «За мастерство и подвижничество во благо рус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медалью им. М.В. Ломоносова «Универсальный человек», а также орденом М.Ю. Лермонтова «Герой нашего времени», и дипломом «За верность русской культуре и литературе» им. И.Бунина. Больше 10 стихотворений поэтессы вошли в «Антологию современной русской поэзии», которая вышла в прошлом году.

Состоялась автограф — сессия поэта Марты Ким. Тёплые слова приветствия были высказаны от имени директора Дома народов А.А. Полежаевой её советниками Натальей Альтнер и Мехрибан Садыковой.

Организаторы вечера вручили виновнице торжества Почётную грамоту Дома народов России и Благодарственное письмо Ассамблеи народов России. Были преподнесены памятные подарки. Цветов тоже было много!

Участники с удовольствием прослушали концертные выступления корейской фольклорной группы, а также исполнительницы Маргариты Чагай, которая спела на русском и корейском языках. Кроме того, они насладились превосходным исполнением на пианино внучки Марты Борисовны Дианы и её подруги Софии Пак, которые сыграли несколько превосходных музыкальных произведений.

Завершилось интерес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дружеским чаепитием в кругу друзей.

Ким Моисей, председатель Совета ООК, культуролог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КНДР провела испытание новой тактической баллистической ракеты

18 мая Северная Корея сообщила о проведённом накануне успешном испытательном запуске тактической баллистической ракеты, оснащённой новой «автономной» навигационной системой. По данным агентства ЦТАК, за испытанием оружия наблюдал лидер страны Ким Чен Ын. «В ходе испытательных стрельб проверены точность и надёжность автономной навигационной системы»,- говорится в сообщении. О характеристиках ракеты и количестве запущенных ракет не сообщается. По данным Объединённого комитета начальников штабов вооружённых сил РК, 17 мая в 15:10 по местному времени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запустила несколько баллистических ракет малой дальности из района города Вонсана провинции Канвондо в направлении Восточного моря. Это пятый с начала года запуск Пхеньяном баллистических ракет.

Пхеньян критикует субкритическое ядерное испытание США

Субкритическое ядерное испытание, проведённое США на полигоне в Неваде ведёт к обострению мировой гонки ядерных вооружений, и Пхеньян в этой связи вынужден принять необходимые меры. Об этом говорится в заявлении представителя МИД КНДР, опубликованном 20 мая агентством ЦТАК. Проведённое испытание «создаёт новую напряжённость в военном противостоянии между ядерными государствами и ускоряет глобальную гонку ядерных вооружений». В этой связи «нельзя допустить влияния данного ядерного испытания на ситуацию в регионе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Для того, чтобы подготовиться к стратегической нестабильности, создающейся из-за действий США, Пхеньян «вынужден принять необходимые меры по повышению готовности к ядерному сдерживанию в рамках своего суверенного права и возможных вариантов выбора»,- говорится в заявлении. Какие именно меры могут быть приняты, не сообщается. Субкритический, то есть, без возникновения цепной ядерной реакции, эксперимент состоялся 14 мая. США утверждают, что субкритические эксперименты не нарушают Договор о всеобъемлющем запрещении ядерных испытаний.

Президент РК призывает начать эпоху, ориентированную на простых людей

Счастливого и полное надежд будущее - способ сохранения духа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го движения 1980 года в Кванчжу. Об этом заявил президент РК Юн Сок Ёль, выступая 18 мая на церемонии по случаю 44-й годовщины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го движения, которая состоялась на Национальном кладбище в Кванчжу.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РК построила свободную демократию, она сталкивается с проблемами, вызванными экономическим неравенством и социальной поляризацией. Именно поэтому необходимо начать эпоху, ориентированную на простых людей и средний класс, посредством справедливого распределения плодов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оста и усиления защиты социально уязвимых групп населения. Только в этом случае станет возможно поддерживать дух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го движения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требованиями времени и почтить память погибших жителей Кванчжу,- отметил президент.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е движение, которое разразилось в 1980 году в Кванчжу и регионах провинции Чолла-Намдо, стало выражением протеста народа против военной диктатуры тогдашнего президента Чон Ду Хвана.

Правительство вновь призвало бастующих врачей вернуться на работу

20 мая министр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социаль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РК Чо Гю Хон в очередной раз призвал врачей-интернов, которые уже три месяца не выходят на работу, вернуться в больницы. Одновременно он призвал медицинское сообщество обсудить проведение медицинской реформы. Призыв прозвучал после того, как апелляционный суд Сеула отклонил требование медицин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заблокировать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й план увеличения приёма в медицинские вузы. Согласно закону, врачи-интерны не могут отсутствовать на работе более трёх месяцев. В противном случае они лишаются права на сдачу экзамена на получение лицензии специалистов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сказал Чо Гю Хон. Он также подтвердил, чт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открыто к диалогу с медицинским сообществом в любой форме.

14 июля в РК будет отмечаться День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беженцев

14 июля в РК будет отмечаться День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беженцев. Как сообщили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и безопасности, соответствующая поправка в Положение о памятных датах внесена 21 мая. Поскольку в этом году День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беженцев отмечается впервые, к нему будут приурочены различ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в том числе, церемония закладки памятника тем, кто пожертвовал своими жизнями в процессе бегства из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Дата 14 июля выбрана потому, что 14 июля 1997 года вступил в силу Закон о защите и поддержке переселенцев из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Ким Чен Ын с дочерью открыли в Пхеньяне новую "Авангардную улицу"

"Авангардная улица" или по-корейски "Чонви кори" - так называется новый современный микрорайон на северо-западе Пхеньяна, церемония открытия которого прошла в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столице с большой помпой - фейерверками, митингами и народными гуляниями. В мероприятии принял участие Ким Чен Ын и его дочь Чу Э, которая до этого не появлялась на публике два месяца.

Как сообщило Центральное телеграфное агентство Кореи (ЦТАК), церемония открытия нового жилого микрорайона Пхеньяна прошла во вторник 14 мая. На мероприятии лично прибыл лидер КНДР Ким Чен Ын, которого сопровождала его 11-летняя дочь Чу Э. Ее ЦТАК назвало "любимым ребенком".

Как отмечают СМИ КНДР, когда вождь и его дочь появились на площади, где проходила церемония открытия, все собравшиеся стали дружно аплодировать и кричать "Ура!", приветствуя лидера страны. Ким Чен Ын произнес короткую речь, затем прошел небольшой митинг. Лидер лично перерезал красную ленточку, символизирующую окончание строительства. Вслед за этим был фейерверк и торжественный концерт, где Ким и Чу Э присутствовали до конца. Отметим, что девочка не появлялась на официальных мероприятиях ровно два месяца. В последний раз об ее участии сообщали при посещении Кимом учений войск ВДВ Северной Кореи 15 марта.

Хакеры взломали электронную судебную систему Южной Кореи

Громкий скандал в связи с очередным случаем массовой утечки личных данных разразился в Южной Корее. Выяснилось, что хакеры смогли проникнуть в электронную судебную систему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 похитить более 1000 гигабайтов информации, среди которых самые подробные личные данные граждан страны. Южнокорейские следователи уверены, что это дело рук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хакерской группировки Lazarus.

О взломе электронной судебной системы Южной Кореи стало известно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проверки, которую провели совместно эксперты полиции, национальной разведывательной службы и генпрокуратур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зломщики успешно похищали информацию из системы как минимум с 7 января 2021 по 9 февраля 2023 г., то есть не менее двух лет. При это следователи признают, что 7 января 2021 г. - условная дата начала проникновения. Известно, что тогда хакеры уже были в системе, но высока вероятность, что это произошло и раньше.

В деле до сих пор много неясностей, которые грозят еще более крупным скандалом, так как ущерб может оказаться гораздо больше, чем предполагается. На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известно, что хакеры похитили не менее 1014 гигабайт информации, но какие именно данные утекли - это можно сказать только в отношении 4,7 ГБ, или полупроцента, от всего объема похищенных данных.

Утекли к взломщикам все данные, которые участники судебных процессов указывают о себе. В случае с судом это обычно очень подробная информация - не только фамилия-имя, личный регистрационный номер, дата рождения, но и номера банковских счетов, регистрационные свидетельства и их номера, свидетельства о браке, медсправки, документы, касающиеся имеющихся займов, инвестиций, а также подробные

Про новый микрорайон известно, что расположен он на северо-западе Пхеньяна в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м округе Сопхо, и доминантой в нем является 80-этажный жилой небоскреб. Также там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строений, отведенных под жилые комплексы, общественные здания и заведения сферы быта. Общее число квартир - 4100. Новый район построен был очень быстро - строительство началось в феврал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а вот теперь он введен в строй.

Название - "Авангардная улица" - выбрано не случайно. Строительство микрорайона вели молодежные "ударные бригады" КНДР, а название символизирует, что именно молодежь является авангардом развития государства.

Нынешний проект является одним из трех крупных проектов строительства жилья в Пхеньяне, о которых было заявлено в прошлом году. Всего же на 8-м съезде Трудовой партии Кореи в январе 2021 года было заявлено, что за ближайшие пять лет в столице будут построены 50 тысяч новых квартир. В рамках выполнения этого решения, в 2022 году был построен микрорайон на улице Сонхва на 10 тысяч квартир, с 2023 года развернулось строительство в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м округе Хвасон Пхеньяна, параллельно шло возведение и "Авангардной улицы".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Г)

причины, допустим, получения кредитов и прочее. Эксперты опасаются, что эта информация может быть потом использована для кражи денежных средств у тех, чьи данные похищены.

По мнению южнокорейских специалистов, за взломом стоит достаточно известная хакерская группировка Lazarus, которой приписывают связи со спецслужбами КНДР. Южане утверждают, что у Lazarus есть две большие "дочерние структуры": одна специализируется на похищении информации финансового характера и собственнo денежных средств, а другая - данных военного характера и гостайн. Предположительно, проникли в судебную систему "финансисты", которые скорее всего затем и попытаются использовать украденные данные для их "монетизации".

Южнокорейские эксперты признают, что в ходе проверки было обнаружено немало брешей в системе защиты электронной судебной системы РК. Так, о взломе стало известно еще несколько месяцев назад, но в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м управлении судов РК решили "не беспокоить" экспертов из полиции и контрразведки, попытавшись сначала самим все проверить. В результате было потеряно достаточно много времени. Кроме того, по ряду параметров не соблюдались элементарные требования компьютер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 пароли временами были очень простыми, долгое время не менялись и пр.

Отметим, что это далеко не первый случай взлома самых разных компьютерных систем в Южной Корее, который приводит к масштабным утечкам данных. Несколько месяцев назад были выявлены серьезные уязвимости в системе электронного голосования Центризбиркома РК, а также в системах хранения данных в ряде госструктур.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Г)

У Вон Сик – кандидат на пост спикера парламента от оппозиции

Крупнейшая оппозиционная Демократическая партия Тобуро избрала У Вон Сика своим кандидатом на пост спикера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Ожидается, что он станет первым главой парламента 22-го созыва, который приступит к работе в конце мая, поскольку традиционно данную должность занимает партия, имеющая наибольшее количество депутатских мест. На выборах, состоявшихся 10 апреля, Демократическая партия Тобуро получила 175 из 300 мест в Национальном собрании. Депутат парламента пяти созывов У Вон Сик опередил на выборах бывшего министра юстиции, парламентария шести созывов Чху Ми Э. Депутат Ли Хак Ён, парламентарий четырех созывов из той же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Тобуро, избран кандидатом на пост вице-спикера.

KBS World

Пхеньян вновь опроверг обвинения в поставках оружия России

«У КНДР нет намерения экспортировать наши военно-технические возможности в какую-либо страну»,- говорится в заявлении заместителя заведующего отделом пропаганды и агитации Центрального Комитета Трудовой партии Кореи Ким Ё Чжон, опубликованном 17 мая агентством ЦТАК. Обвинения в военно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между Пхеньяном и Москвой названы в заявлении «самым абсурдным парадоксом», поскольку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е тактическое оружие, включая реактивные системы залпового огня и ракеты, предназначено для того, чтобы удержать Южную Корею от «любых праздных размышлений». «Для нас наиболее актуально не «рекламировать» или «экспортировать» что-то, а сделать боевую готовность и военное сдерживание нашей армии более совершенными по качеству и количеству»,- говорится в заявлении.

KBS World

Детский сад откроют в жилом комплексе в Новой Деревне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В ходе рабочей поездки в Ново-Александровск и Новую Деревню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сетил два строящихся жилых комплекса — «Верб» и «Зеленый город». Глава региона проверил темпы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ов, а также обеспечение микрорайонов социаль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ой и подъездными путями.

Жилой комплекс «Зеленый город» в селе Новая Деревня частично сдан. Сейчас застройщик завершает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домов второй очереди, третий этап строительства будет готов к заселению в декабре этого года. Всего в микрорайоне будут проживать свыше 3000 человек.

Один из ключевых вопросов, который обсудили в ходе проверки, — создание детского сада на территории жилого комплекса. Проектирование отдельно стоящего дошкольного учреждения начнут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после чего приступят к строительству объекта. Тем не менее, сейчас первые жители микрорайона вынуждены возить детей в сады и школы в других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ах. По поручению главы региона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на первом этаже одного из домов откроют детский сад, где в последующем можно будет организовать дополнитель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 Детский садик будем проектировать и строить, пока давайте найдем подходящее для этого помещение, потом отдадим его под дополнитель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Это важно. Вопрос необходимо решить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Следующим вопросом стало строительство подъездных путей к микрорайону. Проект создания дорожной сети готов и проходит экспертизу, но есть проблемы с транспортной доступностью комплекса, а также разрыв между заселением жильцов и асфальтированием проездов.

Вице-мэр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Алексей Римша сообщил, что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специалисты привели проезды в надлежащее состояние и будут следить за их состоянием до момента асфальтирования. Вскоре здесь запустят общественный транспорт по щебеночным дорогам.

— Проектная документация готовилась застройщиком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разбита на очереди, это позволит вводить дороги частями, — сообщил Алексей Римша.

Также в ходе рабочей поездки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сетил жилой комплекс «Верб» в Ново-Александровске. Строительство первого этапа завершили в 2023 году. Тогда в эксплуатацию сдали 100 квартир, которые уже заселены. В этом году специалисты обустроят проезды к микрорайону и проведут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прилегающих территорий.

— Первый дом мы ввели в декабр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второй дом — трехсекционный, — строится сейчас. По проекту здесь предусмотрены также квартиры для маломобильных граждан и кладовые помещения для хранения. Во втором доме по просьбе муниципалитета на первом этаже здания появится детский сад на 100 мест. Кроме этого, в этом комплексе есть помещения для детского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Для проектирования детского сада мы привлекали московских специалистов — есть возможность трансформирования пространства, разработана многофункциональная среда, подобраны гармоничные цвета. По запросам жителей мы предусмотрели помещения для торговли. Также мы сделаем площадку для выгула и дрессировки собак, место позволяет. Получается самодостаточный комплекс, который будет обеспечивать жителей микрорайона всем необходимым, — рассказа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подряд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По проекту второй этап застройщик завершит до июня 2025 года. Тогда же ключи от нового жилья получат еще 324 семьи.

Отметим, ежегодно по поручению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водят в эксплуатацию более 500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жилья. Глава региона неоднократно подчеркивал, что новые дома и микрорайоны должны быть обеспечены всей необходим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ой — дорогами, парковками, объектами образования и общественными пространствами.

В этом году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отремонтируют 340 многоквартирных домов

340 многоквартирных домов капитально отремонтируют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в этом году — почти в два раза больше, чем в прошлом. Такую задачу перед областным министерством ЖКХ постави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С наступлением тепла на островах стартовал сезон капитального ремонта многоквартирных домов, включая обновление фасадов. В этом году я дал задачу профильному министерству удвоить объем капитальных работ. Поэтому в планах на строительный сезон — привести в порядок целых 340 многоквартирных домов по всему островному региону. При этом важно, чтобы мнение жителей было услышано, и все изменения, касающиеся дома и его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происходили с их участием, — подчеркну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К работам на объектах приступили практически во всех районах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к ремонту присоединятся Поронайский и Макаровский городские округа, а также муниципальные образования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Сейчас в этих районах заканчиваются подготовительные работы, завершается доставка необходимых материалов.

В планах — замена инженерн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ремонт фасадов, крыш, фундаментов, подвалов и лифтов. На эти цели из бюджетов разных уровней направят почти 5 миллиардов рублей.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лично проверил, как организован капитальный ремонт на объектах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К примеру, комплексные работы развернули на Фабричной, 11. Здесь приводят в порядок фасад, утепляют швы, в подъездах меняют окна и двери.

— Очень рады, что совсем скоро наш дом обретет новый облик — у нас ремонтируют фасад, входные группы. Мы этого очень ждали. У нас есть еще одно небольшое пожелание. Мы, пенсионеры, очень любим проводить время во дворе. Но нам не хватает здесь лавочек. Надеемся, что в этом году у нас их поставят, — сказала главе региона жительница дома.

— Думаю, к середине июня лавочки уже будут здесь стоять, — ответила местный депутат.

Всего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иведут в порядок более 120 домов. Также в лидерах по объему работ — Холмский, Охинский и Корсаковский районы. Там новый облик получат 34, 26 и 24 жилых здания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Миллион цветов высадят в этом году в столице Сахалина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второй год подряд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ысадят как минимум миллион цветов. Островную столицу украсят розы, львиный зев, виолы, тюльпаны, адонисы, centaurei, гвоздики и другие яркие растения. Глава региона и мэр проконтролировали, как организована посадка цветов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 В прошлом году мы украсили Южно-Сахалинск миллионом самых разных цветов. Получилось очень красиво — жители города и туристы это высоко оценили. В этом году необходимо высадить как минимум столько же растений, — отмети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Хочется сказать, что администрация островной столицы подходит к делу ответственно, с фантазией. Регулярно проводим совещания, посвященные этой теме. Держим на особом контроле работу по созданию зеленых зон, различных мест отдыха и общественных пространств в городе.

— К сегодняшнему дню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ысадили 70 тысяч цветов. Кроме того, распустились посаженные прошлой осенью тюльпаны — 80 тысяч штук. До конца мая высадят еще 65 тысяч саженцев цветов, а после 15 июня — рассаду разных однолетних растений, — подчеркнул мэр Сергей Надсадин.

Сегодня активные работы развернуты в сквере 135-летия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который расположен в 9-ом микрорайоне.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лично принял участие в высадке цветов.

— В этом году уделили внимание хвойным растениям, поэтому здесь все такое яркое и зеленое. Сейчас высаживаем львиный зев розового и белого цветов, — рассказала главе области начальник МКУ «Охраны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и озеленения» Ольга Высоцкая.

К работе по высадке цветов присоединились активные жители города, управляющие компании, работники детских садов и школ,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Центр ядерной медицины заработал на Сахалине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дал старт работе центра ядерной медицины. Он создан на базе областного онкологического диспансер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нём завершили установку сложного диагностическ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которое позволит выявлять опухоли на ранних стадиях.

Онкологический диспансер оборудовали современным диагностическим оборудованием, которое соответствует самым высоким стандартам, позволяющим оказывать качественную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ую медицинскую помощь пациентам, не покидая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его аналогов нет в других регионах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Аппарат позитронно-эмиссионного компьютерного томографа (ПЭТ/КТ) используется для уточняющей диагностики, оценки распространенности и динамического наблюдения опухолей, лимфом, меланомы и других патологий. Однофотонная эмиссионная компьютерная томография (ОФЭКТ) позволяет выявлять поражение костей, часто не определяющиеся другими методами исследования, оценивать функцию щитовидной железы, почек, выявлять метастазы в регионарных лимфоузлах. Для обеспечения работы отделения в диспансере оборудована радиоизотопная лаборатория. Необходимые для работы техники расходные материалы будут на регулярной основе доставлять из Хабаровска.

— Запуск Центра ядерной медицины позволит усовершенствовать процесс диагностики и лечения онкозаболеваний. Сейчас здесь установлены самые современные аппараты. Они относятся к классу передов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экспертного уровня. В перспективе в учреждении будут установлены «горячие койки», необходимые для самых серьезных стадий заболевания,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Горячие койки» — новый вид лечения, относится к классу радионуклидной терапии. Она заключается в использовании вводимых в организм пациента радиофармпрепаратов, которые воздействуют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на патологические очаги. Ежегодно за пределы региона приходилось направлять до 50 пациентов, нуждающихся в такой помощи. Запуск нов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позволит значительно расширить спектр диагностики и лечения.

— Пропускная способность — высокая, аппаратура будет обеспечивать всю потребность в данных видах исследований. При наличии медпоказаний диагностику в онкодиспансере смогут пройти все жители области, — рассказал Сергей Старцев, главный врач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клинического онкологического диспансера.

Выявление онкозаболеваний является частью лечебного процесса на всех этапах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 не только в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ом диспансере, но и в первичном звене — поликлиниках, ФАПх и амбулаториях. С этой целью ежегодно в регионе строятся новые медицинские объекты, происходит оснащение аппаратурой.

— Мы ежегодно открываем до пяти фельдшерских пунктов и врачебных амбулаторий.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планируем открыть сразу 11. Это новые здания в местностях, где никогда не было медицинских объектов или корпуса на смену ветхих строений. С открытием этих объектов можно решить вопрос дистанционной помощи, посредством телеконсультаций — для того, чтобы можно было определить первичные симптомы или обнаружить какую-то склонность к заболеванию. Современные дистанционные технологии и консультации дают возможность приблизить медицинскую помощь в отдаленные территории, — добавил Владимир Ющук,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Благодаря появлению современн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для диагностики и повышению доступности медицинских услуг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казатель динамики выявления онкозаболеваний на 1-2 стадии ежегодно увеличивается. По итогам 2023 года он составил 59% от общего количества. Что позволяет делать лучший прогноз на лечение людей.

60 семей в Томаринском районе переедут в новое жилье до конца 2025 года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овел рабочую встречу с мэром Томаринского района Ольгой Манжарой. В своем докладе глава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сообщила, что в 2024-2025 годах в Красногорске появятся сразу два многоквартирных жилых дома. Также на совещании обсудили вопросы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дорож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и развития культуры и образования в муниципалитете.

Ольга Манжара сообщила основные аспекты, по которым ведется работа в муниципалитете. Одним из ключевых вопросов является строительство нового жилья и расселение аварийного фонда. За последние пять лет в районе построили 18 новых многоквартирных домов, куда переехали 516 семей. В ближайшие два года в Красногорске построят еще два дома площадью 4630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В планах на 2024 год обеспечить новым жильем 21 семью.

— Вопрос переселения из ветхого и аварийного жилья достаточно серьезный.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у нас 3 513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которые признаны аварийными до 2022 года и включены в текущую программу по переселению. В этом году мы начинаем строительство, завершаем в 2025, и еще 60 семей обеспечиваем новым жильем. Мы на этом не останавливаемся и уже ведем работу по формированию нового жилфонда для последующего переселения, — сообщила Ольга Манжара.

За последние пять лет также выполнен капитальный ремонт в 59 жилых домах.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уделяют модернизации внутренних систем, обновлению фасадов и конструкций.

— Очень важно, чтобы все коммуникации и кровли были в порядке, — подчеркну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Ко всему прочему,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в муниципалитете будет полностью завершен капитальный ремонт дворов.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продолжается еще на трех территориях. Также в текущем году закончат ремонт 55 подъездов.

Что касается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общественных пространств, активно продолжается комплексное развитие набережной, которая станет визитной карточкой районного центра. В 2025 году завершатся работы по обновлению привокзальной площади в Томари.

До 1 июня в рамках текущего (ямочного) ремонта приведут в порядок дороги в муниципалитете. На участке Парусное — Красногорск протяженностью 9 км запланирован капитальный ремонт.

Также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ддержал инициативу по реконструкции моста в Красногорске, который объединяет село. Действующий мост был построен в 2012 году и является временным строением, в связи с чем требует обновления. Вопрос обсудят совместно с минтрансом.

Еще одна просьба мэра — поддержать реконструкцию школы в Пензенском и зрительного зала сельского дома культуры в Красногорске.

— Те объекты, которые мы сегодня приводим в соответствие, очень важны для жителей муниципалитета, — отметила Ольга Манжара.

Отметим, в районе продолжается модернизация в сфере медицины — выполнен капитальный ремонт участковой больницы в Красногорске, построен ФАП в Ильинском, закуплено новое современн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Также за последние пять лет в муниципалитете обустроили 15 детских и спортивных площадок, провели реконструкцию футбольного поля в томаринской спортшколе. Продолжаются работы по улучшению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ЖКХ. В Томари проведен капремонт здания насосной станции первого подъема, разработана проектно-сметная документация по строительству насосной станции второго подъема.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재외동포청, 29일 KBS 별관서 출범 1주년 기념 '2024 코리안 페스티벌' 개최

god 박준형·김태우 사회로 가수 정미조·이무진, 배우 정선아 등 출연

이기철 청장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재외동포와의 유대감 강화 계기 되길"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5월 29일(수) 오후 7시 30분 서울 여의도 KBS 별관 공개홀에서 재외동포청 출범 1주년 기념 '2024 코리안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재외동포청은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재외동포와 내국인 간 유대감 및 상호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매년 코리안 페스티벌을 열고 있다.

올해는 출범 1주년(6월 5일) 축하의 장으로 마련했으며 재외동포뿐만 아니라 방청을 원하는 일반 관객 누구나 KBS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페스티벌은 재외동포청의 미션과 비전, 지난 1년 간의 성과를 소개하고, 재외동포를 이야기하는 음악공연 형식의 무대로 꾸며진다.

페스티벌은 미국에 이민한 후 20년 이상 재외동포로 거주했던 god 박준형과 김태우의 사

회로 진행된다.

프랑스 이민 후 40여년만에 가요계로 복귀해 활동 중인 재외동포 가수 정미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뮤지컬배우 정선아, 가수 이무진을 비롯해 시그니처, 이펙스, 카디, 하모나이즈 등이 출연해 무대를 꾸민다.

코리안 페스티벌은 오는 6월 8일(토) 오후 11시 15분 KBS 1TV에서 방송되며, KBS 월드를 통해서도 전 세계 142개국으로 송출된다.

이기철 청장은 "이번 페스티벌은 재외동포청 출범 1주년을 기념해서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재외동포와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마련했다"면서 "우리 국민의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재외동포와의 유대감 강화뿐 아니라, 재외동포청의 활동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청 제공)

'2024 세계한인입양동포대회' 개막 15개국 100명 참가

3박 4일간 한국 역사문화 및 발전상 체험, 지역별 그룹토의 등 진행

'2024 세계한인입양동포대회'가 5월 21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개막했다.

모국과 해외 입양동포 간 유대감 형성과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이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 올해는 미국, 캐나다, 프랑스,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호주 등 15개국에서 입양동포와 그 가족 등 100명이 참가했다.

이날 저녁 열린 개회식에는 이기철 재외동포청장과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이 참석해 각각 개회사와 축사로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이기철 청장은 개회사에서 "조국은 입양동포 여러분을 잊지 않고 여러분을 '재외동포'로 분명히 인정하고 있다"면서 "외국인으로서는 한국의 핏줄을 가진 사람으로 분류하므로 여러분은 재외동포이고 재외동포청의 보호, 지원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외동포청은 입양동포들의 실질적인 권익신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세계 각국 입양동포와 모국 간 유대감을 높이고, 입양동포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이번 대회와 같은 입양인 동포를 위한 모임을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청장은 또 재외동포청의 한국의 정치·경제 발전상 알리기 프로젝트에 대해 소개하며 입양동포들의 동참을 요청했다.

정익중 원장은 축사를 통해 "정부가 내년 7월 시행될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맞춰 모든 입양 아동의 안전과 관리를 국가가 책임지는 입양체계 구축에 나서면서 국내·외 입양체계가 큰 변화를 맞게 됐

다"며 "앞으로도 아동권리보장원은 모든 입양 관련 기록의 관리와 입양정보 공개 업무에 효과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참가자를 대표해 인사말에 나선 안톤 클레슨(스웨덴, 대학생) 씨는 "이번 대회에 참가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특히 스웨덴에 입양된 어머니의 아들로서 내 안에 한국인과의 연결성이 있다는 사실에 감회가 새롭다"면서 "이번 대회에 참가한 모든 사람이 여기 이 자리에 함께한 여정은 각각 다르겠지만, 한국과의 연결과 그 발전적인 관계의 희망을 기대하는 그 소망은 같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회는 '연결의 힘: 더 밝은 미래를 향해'라는 주제로 5월 24일까지 3박 4일간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대회기간 동안 법무부, 아동권리보장원 등 유관기관이 마련하는 재외동포 비자(F-4) 취득에 대한 설명을 듣고, 친족 찾기와 유전자 검사 등에 참여한다. 또한 재외동포청이 시행하는 입양동포를 위한 각종 사업 등에 대한 정보를 청취했다.

아울러 한국민속촌 등을 방문해 '한국의 역사문화'를 체험하고, 삼성이노베이션 뮤지엄과 코엑스 등을 찾아 '모국의 발전상'을 돌아보는 시간도 가졌다.

국가별, 지역별 참가자들 간 그룹토의를 통해 입양동포와 모국의 공동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작년 대회에서 채택한 '참가자 선언문'의 구체적 이행을 위해 참가자들의 자발적인 노력 등을 담은 '이행계획'도 세워보았다.

(재외동포신문)

선문대, 가정의 달 맞아 사할린 동포 어르신께 화분 전달

(아산=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선문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충남 아산시 온양신정중 학생들과 함께 지역에 정착한 사할린 동포 어르신들을 찾아가 장미 화분을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사할린 동포는 일제 강점기에 러시아 사할린주에 강제 징용된 뒤 해방 후에도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한인들이다.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을 통해 충남 지역에는

200명가량의 어르신이 정착해 거주하고 있다.

선문대 ESG사회공헌센터를 중심으로 재학생 10명, 아산시교육기부연계협의체 소속인 온양신정중 학생 15명이 참가해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누고 화분을 전달했다.

강동훈 센터장은 "작은 행동이지만 사할린 동포 어르신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세계 한인경제인 수장이 되기까지 박종범 월드옥타 회장의 휴먼스토리

월드옥타, "모국과 상생하는 단체 위상 재정립" "수출 침병 초심으로 돌아가 향후 100년 비전 세울 것"

(전호의 계속)

오스트리아와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요?

기아자동차 상사 부문의 오스트리아 법인장으로 발령받아 1996년에 건너왔습니다. 하지만 IMF의 여파로 1998년 말 기아차가 현대차에 인수합병되면서 귀국 길에 올라야 했는데, 귀국하지 않고 비엔나에 남아 1999년에 '영산 한텔스(Handels·무역)'란 회사를 직원 한 명을 두고 창업했습니다.(영산그룹은 현재 유럽·러시아·중국 등 20개국에 30개 사업장을 가진 중견 기업으로 성장했고, 연 5000억원에 가까운 매출을 올리고 있다.)

동양인이 혈혈단신 유럽에서 사업을 키우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을 텐데요.

- 우크라이나 사탕 공장에 한국산 비닐 포장지를 납품하는 게 첫 사업이었죠. 기아차 법인장 시절 알고 지내던 우크라이나 기업 담당자를 통해 일감을 따냈고, 이후에 카메라 필름, 포장지, 원목용 PVC 필름 등으로 조금씩 사업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후 약 1년 쯤 됐을 때 사탕 포장지 인쇄가 제대로 되지 않는, 품질 문제가 발생했는데, 수십만 달러 규모의 손실을 메워줘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라 다른 나라로 도망갈 수도 있었지만 저는 달아나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지기로 약속하고 2년 동안 그 돈을 다 갚았습니다.

믿을만 한 사람이라는 신뢰감 있는 모습에 사업 기회가 계속 이어졌죠. 우크라이나를 비롯, 동유럽 현지 기업이 한국차를 수입·판매할 때 이를 중개하는 일도 맡았고, 여기서 번 돈으로 자동차 부품 생산 사업에도 진출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 안에 공장 5개가 멈춰 있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영산그룹 '영산'의 특별한 의미는 무엇인가요?

- 제가 카톨릭 신자인데, 제 본명이 카르멜로예요. 까르멜 산에서 나온 거죠. 영스러운 산이라는 의미가 있고, 제가 또 태어난 곳이 영산강 상류니까, 그런 의미에서 영산그룹이라고 지었죠.

문화 사업이나 차세대 후원사업도 많이 하시는데, 특별한 이유는요?

- 제가 1996년에 오스트리아를 갔을 때만 해도 미디어 마트(MediaMart) 같은 대형 가전 상가를 가면 일본 전자제품이 짝 깔려있었죠. 그래도 한국 사람이니까 삼성, LG 찾아 보면, 맨 뒷켠에 보일까 맡아 했었죠. 그런데,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전부 삼성, LG로 바뀌더라고요. 너무 자랑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몇 년 있으면 이곳이 다 중국 제품으로 싹 덮힐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것을 훨씬 더 연장시키고, 오랫동안 지속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고민하게 된 거죠.

현지인들로 하여금 삼성, LG 등 일류 가전들이 대한민국 제품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문화예술이 제품 속에 같이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이 그 속에 취해요. 자신도 모르게 제품에 대한 충성도가 훨씬 높아지는 거죠.

글로벌 시장에서 요즘 가전이나 자동차는 국적의 개념이 별로 없어요. 유럽에서도 늘상 접하게 되면 그게 한국산처럼 느끼지 않고 자기네들 것인 것처럼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K-컬처가 중요한 거예요. 고객들

은 메이드인코리아 상품이란 점에 더 친밀감을 가지고 훨씬 더 오랫동안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게끔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문화 예술의 힘이지요.

그런 생각을 하던 중에, 오스트리아에는 특히 음악하는 유학생들이 많잖아요. 실력은 좋은데, 상대적으로 기회가 적은 그들에게 무대에 설 수 있는 장을 많이 만들어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결정적인 것은 2007년으로 기억되는데, 한국 대사관에서 10월 3일을 전후해 국경일 행사를 하잖아요. 당시 주 오스트리아 한국대사에게 제안을 했죠. 맨날 같은 형식의 리셉션만 하지말고, 오스트리아의 좋은 홀을 빌려서 음악회와 함께 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에는 좋은 홀이 많거든요. 그 홀에는 반드시 리셉션장이 있어요. 그 리셉션장을 빌리면 호텔보다 훨씬 싸게 먹히죠.

물론, 그날의 음악회는 훌륭한 유학생 음악가들과 오케스트라를 준비해 성황리에 행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본격적으로 문화 사업에 나서게 된 계기가 되었군요.

- 이게 소문이 나다보니, 우리 공장이 있는 슬로바키아,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동구권 7개 나라를 돌아가며 그 행사를 계속했죠. 그러다보니 노하우도 생기고, 남에게 맡기는 것보다는 우리가 준비해 체계적인 사업으로 키우는게 좋겠다고 생각해, 음악 전공자도 아닌 아내가 WCN이라는 기획사(대표 송효숙)를 차리고 클래식 전문가들을 뽑아서 문화사업을 키워 왔습니다.

빈필의 내한공연이나 국립 오케스트라의 유럽 에이전트까지 맡아 진행하신다고요.

- 빈필이나 해외의 큰 오케스트라가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공연권(판권)을 독일이나 다른 나라의 에이전트가 갖고 있는데, 이들이 한국의 군소업체에게 또 하청을 주는 겁니다. 저희가 그런 중간 과정을 줄이는 작업을 많이 했죠.

그때, 특히 빈필만 하더라도 일본, 중국을 메인으로 해서, 일본은 열 번 정도, 중국은 일곱 번 정도 연주하고 가는데, 한국은 하루 이틀 시간 날 때 살짝 들렀다 가는 형태로 하는 것에 자존심이 몹시 상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살만큼 사는데... 빈필을 만나 한국도 별도로 하자고 설득했죠. 결국 기존 에이전트 계약이 끝나자마자 우리가 맡아서 빈필의 내한 공연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다 보니, 요즘엔 최소 3회씩은 공연을 하죠. 21년인가 22년인가 코로나가 한창일 때는 일본에도, 중국에도 못들어 갔는데, 한국에만 빈필이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전 세계 해외 오케스트라 중에서 빈필만 유일하게 140명 자가격리 면제를 받게 해서 진행을 했죠. 그때 난리가 난 거죠. 그쪽 업계에서는 주목할만한 사건 아닌가요?

그렇게 하면서 착실하게 자리매김을 했고, 그러다 보니 빈 심포니, 빈 소년합창단까지 하나씩 하나씩 늘려 나갔고, 이와 마찬가지로 한국에 있는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 서울시향, KBS 오케스트라, 국립 오케스트라 등의 유럽 투어를 대부분 우리 WCN이 맡아 진행하고 있지요.

【한국(서울)=동포저널】이석수 편집인 (다음 호에 계속)

이 모 저 모

(2편의 계속)

На Сахалине «Сад памяти» высадили почти 4 тысячи лиственниц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рисоединилась к всероссийской акции «Сад памяти», в рамках которой высадили 3,8 тысячи деревьев.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регионального агентства лесного и охотничьего хозяйства.

В субботу, 18 мая, в лесничестве островной столицы сотрудники агентства, волонтеры, представители нефтегазовых компаний, воспитанники Троицкого детского дома, юнармейцы, семьи участников СВО и другие неравнодушные жители области высадили молодые лиственницы. Всего участниками акции стали почти 100 островитян.

«В этом году посадки уже прошли в Курильском, Южно-Курильском, Невельском, Тымовском, Карсаковском, Холмском, Макаровском районах. Здорово, что спустя годы на месте высадки появится замечательный сад, который будет радовать нас и наших детей», — поделилась замуководителя агентства Оксана Печеркина.

На островах акция «Сад памяти» проходит на протяжении пяти лет. На земли лесного фонда и муниципалитетов региона высадят свыше 6,6 тысячи штук сеянцев и саженцев хвойных лиственных пород. Конец акции запланирован на июнь.

Основная цель ежегодной акции заключается в том, чтобы посадить во всех уголках России 27 миллионов деревьев в память о тех, кто погиб во время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и специальных военных операций.

Сахалин, "Дикоросия" миск 축제 개최

Сахалин은 5월 29일부터 6월 12일까지 제2회 "디코로시아(야생식물장)" 미식 마라톤을 개최하여 지역 주민과 방문객에게 섬의 야생 식물의 맛을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사할린 주 농상업부가 전했다.

2024년에는 축제가 확장되어 작년보다 3분의 1이 더 많은 21개 유즈노사할린스크 식당이 미식 마라톤에 참여한다. 셰프들

은 썰기표, 야생 마늘, 우엉, 고사리 등 야생초를 주재료로 한 다양한 미식 세트와 오리지널 요리를 방문객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3코스 세트의 비용은 950 루블리로 동일하게 유지되며 오리지널 요리는 640 루블리부터 시작되어 제공된다.

디코로시아 미식 마라톤은 사할린 관광 정보 센터가 주최하고 사할린 관광부와 '사쿠라'사할린 요리사 및 음식점 주인 협회의 지원으로 개최한다.

На Сахалине пройдет гастрофестиваль «Дикоросия»

С 29 мая по 12 июня на Сахалине во второй раз пройдет гастромарафон «Дикоросия», который подарит жителям и гостям региона уникальную возможность насладиться вкусом островных дикоросов. Об этом сообщает министерство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и торговл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2024 году фестиваль расширился — к гастрономическому марафону присоединилось 21 заведени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что на треть больше, чем в прошлом году. Шефы предложат посетителям разнообразные гастрономические сет и авторские блюда, в которых главными героями станут дикоросы: крапива, черемша, лопух, папоротник.

Стоимость сета из трех блюд осталась прежней — 950 рублей, а авторские блюда предлагают по цене от 640 рублей.

Организатором гастромарафона «Дикоросия» выступает Сахалинский туристско-информационный центр при поддержке министерства туризм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Сахалинской ассоциации кулинаров и рестораторов «САКУРА».

Сахалин 디자이너들, "예술 실험실"에서 아이디어를 발표

의류 및 액세서리 패션 디자이너들이 현대 도시 주민의 이미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의 '마야크' 아트 레지던스에서 현지 브랜드 제작자들은 친환경 트렌드, 일상 생활에서의 밀리터리 스타일, 섬 문화 등 자신만의 패션 비전을 소개했다. 창의적인 사람들이 '예술 실험실' 마켓

의 한 자리에 모였다.

"우리는 사할린 디자이너를 비롯해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의 패션 산업을 지원하는 다채롭고 스타일 있는 독특한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이 마켓의 사명은 섬의 의류 및 액세서리 제조자, 브랜드의 디자이너와 창작자들을 단합하고 소셜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자신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마야크'는 창의적인 사람들이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장소였으며, 이러한 행사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데 몰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항상 수요가 많습니다."라고 '마야크' 아트관의 큐레이터인 알렉산드라 위소츠카야가 말했다.

15개의 사할린 오리지널 의류 및 주얼리 브랜드의 창조자들이 "예술 실험실"에 참여했다.

Сахалинские дизайнеры представили свои идеи в «Лаборатории искусства»

Дизайнеры одежды и модных аксессуаров представили идеи для образов современного городского жителя. На базе арт-резиденции «Маяк»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оздатели местных брендов познакомили всех желающих с авторским видением моды — нашлось место и тренду на экологичность, и стилю милитари в повседневности, и островной культуре. Творческих людей объединил маркет «Лаборатория искусства».

«Мы создали яркий, стильный, самобытный проект, который поддерживает сахалинских дизайнеров и в целом модную индустрию в нашем регионе. Миссия маркета — объединить островных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одежды и аксессуаров, создателей брендов и дизайнеров, а также предоставить им площадку для того, чтобы они могли полноценно заявить о себе в реальной жизни, а не только на просторах социальных сетей. «Маяк» всегда был местом, где творческие люди могут заявить о себе, и такие мероприятия всегда востребованы у тех, кто погружен в создание чего-то нового», — отметила куратор арт-резиденции «Маяк» Александра Высоцкая.

Участниками «Лаборатории искусства» стали создатели 15 сахалинских брендов оригинальной одежды и украшений.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Началась подписка на 2-ое полугодие 2024 года!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за 6 месяцев — 646 руб. 98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бнса 편집부

МЕБЕЛЬНАЯ ФАБРИКА

1+2

КУПИ ДИВАН -

ПОЛУЧИ ПОДАРОК!

Реклама

Березка 2

Лужники

М²

Эконом

ул. Украинская, 58, тел.: 77-77-00

РАССРОЧКА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Уважаемые читатели!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едлагает печатные площади для размещения рекламы, объявлений и поздравлений.

Контакт. телефон: 43-59-80, 43-72-94. Адрес эл. почты: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ая장(주필) 배 워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Н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